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이언스 픽션(SF)은 과학에 기반한 문학장르를 의미하며, 사고실험을 논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르로 평가된다. SF에서는 사고실험을 통해 외계생명체, 시간여행, 평행우주와 같이 인간과 다른 존재들을 두거나 세계 자체를 재설계하는 시도가 펼쳐진다. 또한 SF는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해체하려는 포스트휴머니즘의 관점에서 근대의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특히 김초엽은 SF 소설을 통해 기술과 장애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트랜스휴머니즘의 한계를 지적하고 포스트휴머니즘의 윤리가 무엇인지 드러내고자 한다.

손상과 장애는 논의영역에 따라 구별되기도 한다. 인체의 손상은 신체·감각·인지 기능의 손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적 모델에 따르면 장애는 생물학적 조건의 결함이 아니라 손상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컨대 손상에 대한 반응의 결과, 사회적 장벽에 막혀 사회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장애가 있다고 말한다.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란 한 사회의 수용 가능한 신체 개념, 즉 정상성에 대한 기준이 사회가 구성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김초엽의 ㉠ 『인지 공간』에서 이브는 '아주 작은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 어느 시점부터 그녀는 더딘 성장으로 인해 또래 아이들과 현저한 신체적 차이를 보인다. '깨질듯한 연약함'을 가진 이브는 아이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된다. 작중에서 '인지 공간'은 현생인류의 공동 지식이 영구적으로 보관되는 격자 구조물로 묘사된다. 기억은 오로지 인지 공간을 통해 저장될 수 있고, 기억 중 보관이 가능한 것만이 전송되고 남게된다. 이브는 인지 공간에 들어갈 시민이 될 수 없기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지식을 배울 기회가 없다. 키와 몸집이 큰 작중 서술자 '나'는 그런 이브를 동정한다. 하지만 이브는 오히려 개별적 기억을 배제하고 보편적 지식을 추구하는 인지 공간이 진실을 억압한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우주의 무한함에 다가서고자 '스피어'라는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나'는 인지 공간에 들어가 지적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었으나, 이브가 죽고나서 스피어의 존재를 알게 된다. '나'는 "가짜 세계를 떠나야만 진짜 세계를 직면할 수 있다."는 이브의 말을 실천하기 위해 공동체를 떠나게 된다.

김초엽의 또 다른 소설 ㉡ 『프레모사』는 『인지 공간』과 달리 의료적 모델에 입각한 장애를 재현한다. 이 모델은 치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장애를 몸의 한 성질로 파악, 그것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다고 본다. 『프레모사』에서 사고로 의족을 찬 무용수 유안은 존재하지 않는 허벅지 부위에 통증이 동반되는 환지통에 시달린다. 재활훈련사인 한나는 그에게 회복력을 믿으라며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끊임없이 강조한다. 어느 날 유안은 화학물질 유출로 좀비로 변이된 자들이 프레모사로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비극을 목격하러 간다. 유안은 좀비들이 비록 몸이 불편해보이지만 자연과 잘 어우러져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여 놀라움을 금치 못 한다. 이후 유안은 프레모사 마을의 중심부에서 좀비들이 최면에 걸려 행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좀비들을 조종하는 귀환자들은 "흙과 인간 피부가 융합되어 반쯤 살아있는 석상처럼 끔찍해 보이는 몰골"로 묘사된다. 이들은 국제구호단체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거부하고 살아

간다. 유안이 보기에 그것은 움직이는 것과 멈추는 것의 질서가 전도된 것이었다. 그는 프레모사가 자신의 고향인 듯 느끼고 귀환자들을 찾아가 자신을 구성원으로 받아달라고 요청한다.

의족을 한 유안의 몸은 개조를 통해 장애를 비장애로 전환하려는 트랜스휴먼의 기획을 보여준다. 물론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의 독립성만큼은 여전히 규범성을 차지한다고 보는 점에서, 현생 인류가 개조를 통해 사이보그화 된 초인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현생인류와 같은 인간적 존재자라고 주장한다. 한편 포스트휴먼이란 더 이상 인간종을 대변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한 탈인간을 말한다. 포스트휴머니즘에 따르면 존재자는 휴먼-트랜스휴먼-포스트휴먼 단계로 변모해가며, 존재자가 가장 마지막 단계에 가면 그제서야 그것은 인간이라 할 수 없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

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사고실험의 장을 펼치기 위해 SF 장르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상상하기 어려운 세계관이 구성된 SF 소설도 과학적 사실이나 이론에 바탕을 둔다.
- ③ 사회적 모델에서는 동일한 신체적 손상을 가지고 있어도 소속된 사회의 유형 따라 정상성 여부가 결정된다.
- ④ 『인지 공간』에서 이브는 허약함을 장애로 만드는 사회적 구조에 의해 정상성을 보유했던 자가 그 범위 밖으로 밀려나가는 사례를 보여준다.
- ⑤ 장애가 극복된 탈인간은 초인간과 달리 비인간적 존재자에 포함된다.

5.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인지 공간은 어떤 종류의 기억이든 상관없이 격자 구조물에 보관되고 있는 장소이다.
- ② ㉡에서 서술자 '나'는 이브의 죽음 이전에 진정한 진리를 공동으로 목표함에 있어 이브에게 동정심을 느끼게 된다.
- ③ ㉡에서 유안은 자신의 예상대로 죽음과 절망의 땅이 되어버린 프레모사 마을과 좀비들을 보며 놀라게 된다.
- ④ ㉡에서 한나는 유안과 달리 장애에 대한 의료적 모델의 적극적 추종자로서 장애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 ⑤ ㉠에서 이브는 자신만의 공간인 스피어를 형성하는 것을 통해, ㉡에서 유안은 귀환자들과 프레모사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을 통해 자신들이 가진 장애를 극복하고자 한다.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사람들은 나를 무대로 다시 불러줬다. ㉠ 그들은 내가 절망을 이겨내고 다시 춤추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잃었던 내가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 내 친구 주연도 나의 영상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고 하니 너무 부끄럽다. 정상에서 추락한 무용수가, 고통을 딛고 또 한번 정상으로 오르는 이야기를 원했다. 사람들은 나를 얹혀놓고 끔찍한 고통과 견딜 수 없는 상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했다. 그리고 나를 무대로 보내 그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눈부신 도약을 펼치라고 했다. 나는 그것을 제법 잘 수행해냈다. 수술과 재활로 진 빚을 모두 갚았고 3년에 한 번씩 의족을 새것으로 교체했다. 나는 나의 고통을 팔아서 생존했고 때로 그 사실에 수치심을 느꼈다. ㉢ 나는 모멸감을 잊기 위해 더 많이 도약해야 했다.

『프레모사 中』

○ [줄거리] 로라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실재하는 두 팔 이외에 존재하지 않는 세 번째 팔을 감각하고 이로 인한 환상통을 겪는다. 이 병증을 앓는 사람들은 대개 불쾌감을 느껴 자신의 신체지도와 현실의 몸을 일치시키기 위해 스스로 눈을 멀게 하거나 팔을 절단한다. 하지만 로라는 절단이 아니라 세 번째 팔을 강렬히 욕망한다. 로라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윽고 세 번째 팔을 다는 수술을 감행한다.

㉣ 세 번째 팔은 오른쪽 어깨 부근의 근육과 신경에 연결되었는데, 로라가 그 팔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던 것이 애초부터 인간에게 없는 신체 부위를 연결했기 때문인지 혹은 후천적으로 연결된 팔이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로라는 기계 팔의 외관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무거운 세 번째 팔 때문에 자주 균형을 잃었고, 염증으로 고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라는 세 번째 팔을 가진 채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로라 中』

- ① 한나가 유안에게 지속적으로 회복력을 강조했다는 데서, ㉠은 장애의 존재 자체를 문제로 규정하는 치유에 의한 폭력을 불러오겠군.
- ② 무용수였지만 부족한 실력으로 인해 당시에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데서, ㉡에서 유안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부끄러움을 느끼겠군.
- ③ 유안이 정지와 도약 간 질서가 전도된 귀환자들에게 자신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는 데서, ㉢에서 유안은 의족을 찬 인생이 아닌 몸의 정상성에 대한 갈망을 지배적으로 추구하겠군.
- ④ ㉣에서 로라가 트랜스휴먼이 되었음에도 팔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은 자신의 신체지도와 현실의 몸을 일치시키는 것이 실제로 환상통에 대한 치유 전략이 아님을 시사한다.
- ⑤ ㉤에서 신체의 변형을 통해 장애에서 비장애로의 전환을 욕망하는 로라의 의도는 트랜스휴머니즘의 이념과 일치하지 않는다.